

1백여사 참여한 최첨단 기술적용의 場

'Database '97 Tokyo'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관련 여타 전시회에 비해 실속있게 진행됐다고 평가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구축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사업을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변원수/(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산업지원과

(재)일본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와 일본데이터베이스협회, 일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산성, 우정성,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및 기타 해외협력기관이 후원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전문전시회로는 일본 최대규모인 'Database '97 Tokyo'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면서 東京·有樂亭, 동경국제포럼에서 9월 17일(수)에서 19일(금)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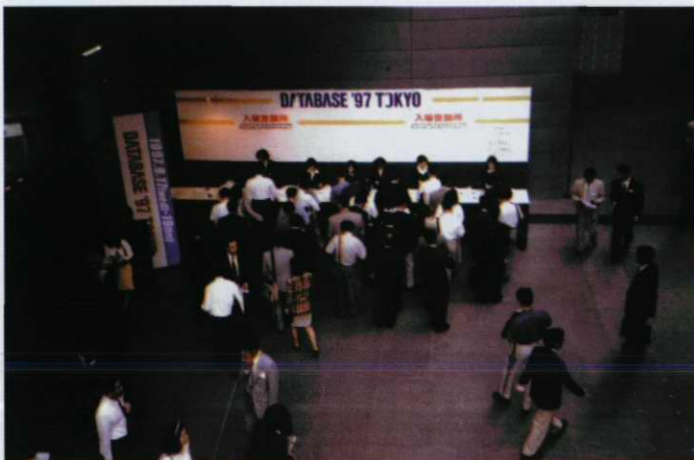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1개 데이터베이스관련 업체 및 기관(총 260부스)이 참가하였으며 방문객은 9회 전시회 총 입장객 3만 4천명을 웃도는 3만 6천

명에 달했다. 동 전시기간중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서도 총 28명의 데이터베이스업체 및 기관전문가로 구성된 참관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데이터베이스 산업동향 및 기술추이를 견학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전시참관중 주최측인 일본경제신문사의 전시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우선 간략히 소개하면 일본에서도 현재 국가사회적으로 데이터베이스분야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목표는 '정보공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베이스통신망 구축과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접속을 가능케하여 기업내부는 물론 기업간, 개인의 정보이용을 원활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해 네트워크, 인터넷분야 등에서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보공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Database '97 Tokyo'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관련 여타 전시회에 비해 전시의 질이 높았으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구축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련사업을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관람객들이 전시안내데스크에서 입장수속을 받고 있다.

전시장 스케치

금번전시는 크게 4개의 영역(zone)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중심의 종합영역

독자리서치에 기초한 기업정보 등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듀서 및 유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디스트리뷰터들이 주로 참여하는 영역으로 신문, 잡지등의 미디어, 비즈니스DB, 과학기술, 검색대행업자, 각종 통신사업자가 퍼스널 컴퓨터를 통해 서비스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서비스, 전자메일 등에서 총 56개사가 참가하였다.

· 업체소개

- 아사히신문 : 일본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대표적인 업체로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의 아사히신문 조간을 Digital News Archives(DNA)로 보유하고 있으며 풀텍스트와 고속정보검색이 특징이며, 인터넷과 인트라넷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 G-Search Ltd. : 상용데이터베이스인 'G-Search'를 통해 국내 160개, 해외 850개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단말시스템(mobil computing)을 통해 조만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번 전시에서는 세계 최대의 DB인 'Profound'와 'InterShop' 등 인터넷상의 쇼핑서비스를 출품하였다.

-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 : JOIS와 STN을 출품하였다. JOIS는 서지정보를 비롯한 연구자료, 신문, 과학, 기술 부분에서 3,000만건 이상의 정보를 보유,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상용서비스이다. STN은 미국의 CAS, 독일의 FIZ Karlsruhe, 일본의 JICST에 연결하여 200개의 데이터베이스에 2억건이상의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 'Genshiro'를 선보였는데, 인터넷에서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JAPIO는 특허정보의 활용을 위해 CD-롬 공보, 종이매체 공보 등의 1차 정보는 물론 2차정보를 작성하여 판매한다. 온라인 서비스 PATOLIS를 출품하였다. 이외에 분산처리형 특허, 실용신안전문검색시스템 및 상표검색 시스템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린넷에서 출품한 양방향 특허정보검색시스템 GNet. 검색속도의 우수성에 비해 비용이 적게드는 특허정보 검색시스템으로 본 정보를 이용하려면 3만엔의 등록비와 1만엔의 월간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s(NACSIS) : 인터넷을 통해 개인용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에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NACSIS-IR이라는 정보검색서비스를 선보였다. NACSIS-IR은 59종의 다양한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며 7,100만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Union Catalog Database'는 일본의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 및 간행물의 서지정보를, 'Directory of Researchers'는 일본대학의 130,000 researchers의 업적과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다.

-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NRI) :

NRI의 일본 경제DB는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와 최근 증권 시세에서 금융시장 통계 등의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Integration Data Services(IDS)는 세계 금융시장, 경제, 회사관련 서비스를 선보였다.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영역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제 1영역의 골격이 되는 데이터베이스구축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최신 기술을 접할 수 있었으며 '96년에 발족한 '全文시스템협회' 후원으로 다수의 전문검색시스템 업체들이 출품하였다. 일본어를 베이스로 하는 광대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

으며 총 25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 업체소개

- Hitachi, Ltd. : 출품된 Hitach Object RDB 유니버설 서버는 SGML 문서의 병렬구조검색이 가능하다. Hitach 고속 풀텍스트검색엔진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에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툴로서 SGML 구조 자료의 등록과 검색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 Logo Vista Corporation : EtoJ Pro는 영문을 일어로 번역하는 소프트웨어로 전문이용자들을 위해서 개발되었다. EtoJ Pro는 고성능의 번역엔진 뿐만 아니라 종합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편집기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였다. 또한 EtoJ Internet PLUS는 인터넷용 영문번역소프트웨어로서 인터넷항해중 정해진 버튼만 클릭하면 EtoJ Internet PLUS는 영문웹페이지를 일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문번역과 부분번역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Nicimy Corporation : Inter Media Library System은 이미지데이터를 저장하는 네트워크시스템으로 고속검색과 이미지 재현이 가능하며 CD-롬 주크박스로 구성된 대용량 CD changer 하나에 600장의 이미지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 Assist Micro Co., Ltd : Assist IHS4 Internet Version은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영화 등 다양한 종류의 인트라넷 구축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써 뿐만 아니라 공공정보서비스용 인터넷시스템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용 가능하다.

또한 Assist Image Runner 2 V.2.1은 클라이언트/서버 패키지 솔루션으로 이미지정보 스캐닝, 등록, 고속재현이 가능하며 LAN, WAN에서 이용 가능하고 MS-워드, 엑셀 등의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한다.

- Nihon Database Kaihatsu Co., Ltd. : 'Word Clearing'은 전문용어 컨트롤 소프트웨어로서 효과적인 시소러스 구축과 유지보수를 가능케 해주며 동의어 및 체계적인 분류에 의한 검색기술을 지원한다.



▲마케팅 인텔리전스 코퍼레이션은 시장정보소프트웨어를 출품하였으며 검색 및 분석 정보이용이 무료이다.



▲G-Search의 상용데이터베이스는 일본 160개, 해외 850개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인트라넷에서 기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맵핑(Mapping) 데이터베이스 영역

이번 전시의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 분야로서 지도정보데이터베이스관련 12개 회사가 참가하였으며, 이제까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수치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집적이라는 인상이 강했으나 마침내 지도정보(GIS)라는 화상데이터가 고속으로 활용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업체소개

- Daikei Data Processing Co., Ltd. : New Daikei Map은 2500분의 1 지도상에 4,000만 전 화가입자의 전화번호부가 제공되며 건물의 형태까지도 지원한다. 이 정보는 정부관공서 및 민간에서 생활상태조사, 화재경보, 유통정보, 경찰 치안정보 제공에 이용될 수 있다. OOGIS는 객체지향형 지리정보시스템의 대표적인 예로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까지 확대 포함하며 지지연구관계와 함께 네트워크로 통제한다.

- Central Engineering Co., Ltd. : 지리정보시스템 Ver 1.5 OCX edition은 현존데이터베이스의 Mapping과 interlocking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체회사 데이터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 VisualMAP Ver1.5는 지도상에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시스템 우수성이 다양한 경로와 고객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 Digital Ware Co., Ltd. : CORE NET 시리즈는 아파트, 주택, 부동산 매매정보의 분석과 매트 로폴리탄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전자지도로서 분석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NET Science는 사용웹사이트로서 고객개별 주문이 가능하다.

- Japan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 Co., Ltd. : 'The smallworld GIS' 를 출품하였으며 차세대 GIS로 각광받는 제품으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용량 클라이언트/서버시스템으로 전기, 가스, 통신, 지방정부 등의 분야에서 이용된다.

- PASCO CORPORATION : 인터넷과 인트라넷에서 현재 이용가능하며 GIS관련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PASCO Map

Library는 25,000분의 1의 정확성을 자랑하며 철도, 도시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데이터베이스 영역

특허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작년부터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서 특허관련서비스/이용기술 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허관련 영역에는 9개사가 출품하였다.

·업체소개

- Japan Patent Data Service Co., Ltd : 인터넷을 통한 특허정보서비스와 윈도우용 JP-ROM, First Plus CD-롬이 출품되었다

- Nomura Research Institute, Ltd. : 'NRI Cyber Patent Desk' 를 출품하였으며 특허청 출판물과 주요기업의 기술저널요약 등을 폴텍스트로 제공한다.

- ULT Research Co., Ltd. : 특허운영 소프트웨어를 출품하였으며 윈도우에서 이용가능한 특허 애플리케이션 및 일본 국내와 해외특허청 자료를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Best System Research Co., Green Net Co., Ltd, Hatsmei-Tsushin Co., Ltd등이 특허관련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나마 이번 전시기간중 출품된 제품과 회사들을 살펴보았다. 전시관련 상세정보는 <http://www.eu.japan.co.jp/db97/index2.html> 로 들어가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영문으로 얻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해외 데이터베이스 관련업체들 보다는 일본자국의 업체들 위주로 자국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기술적용성 또한 세계수준에 비추어 결코 뒤지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시참관을 통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산업도 해외기술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우선적으로 국내시장에 맞는 기술개발과 시장공략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